

※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서성호

전화 02-530-3494 / 팩스 02-530-3269

보도자료
2022. 6. 16.(목)

자료문의 : 형사부
전화번호 : 02-530-3000
주책임자 : 형사부장 임 현

제목 **서울고검, 갈등치유팀을 통한 가족, 이웃 간 고질적·지속적 분쟁사건 해결 노력**

-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중 이웃사이, 가족사이 다툼 등 사소하나 갈등이 지속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2. 2.부터 '갈등치유팀' 운영
- 사건 당사자들은 장기간 고통에 노출된 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서울고검은 '22. 2.부터 갈등치유 전담팀을 구성하여 갈등치유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회복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
- **갈등치유팀**은 ① 부모자식 간 고소사건, ② 코로나 19 창궐 기간 주차문제로 이웃집 차량에 침을 수회 뱉어 고소된 사건, ③ 층간소음 관련 고소 사건, ④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대금 결제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건, ⑤ 마트에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해 고소된 사건 등에 대하여 적극적 중재로 당사자들이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둬
- 갈등치유팀은 꼼꼼한 사건 검토로 합의 가능성을 파악후, **화해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항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재기해 공소권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음

- 갈등치유팀 팀장 강윤정 사무관은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인 감정, 얼어붙은 마음을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때로는 욕설, 불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감정소모가 많은 일이지만, 이웃이나 가족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 면서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감사하다’ 는 등의 감사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더 힘이 난다” 고 업무에 대한 긍지를 내비침
- 서울고검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임을 명심하고, 갈등치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갈등해결 주요사례]

① 오랜 폭력으로 인해 부모자식간 갈등이 심화된 사건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인 자녀가 부모들과 헤어져 살기를 원했음에도 부모들이 주거지, 교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 폭언 등을 가한 사건에서,

검찰이 중재에 나서 양측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신을 교환하고 항고취소에 이른 사례]

- “늘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야 두발 뺀고 살 수 있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것 같다”는 내용의 피해자 감사 편지
-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검찰을 처음 보았다”는 감사 전화(부모)

② 이웃 간 주차시비로 갈등이 심화된 사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아파트 규약을 잘못 이해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아파트 규약상 화물차 주차 가능) 코로나19 창궐 기간에 이웃집 화물차에 침을 수회 뱉은 사건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담당 사무관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여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 후, 침뱉은 주민이 자신이 오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갈등이 해결된 사례]

- “법과 거리가 먼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짧은 생각과 행동으로 피의자가 되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였는데 고검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하였습니다”라는 피의자의 감사 편지

③ 위층, 아래층 모두 서로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한 사건

[항고인이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 방망이질 하는 소리, 재봉틀 박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

항고인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도 검찰출석 거부, 피항고인은 ‘자신은 층간소음을 내지 않고 있는데 항고인이 자꾸 층간소음을 낸다고 관리사무소나 여기저기 이웃한테 불만을 제기하니 힘들다’면서 서로 지옥 같은 삶이라고 고통을 호소

검찰은, 피항고인에게 구청·시청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고,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가능함을 안내한 사례]

- “검찰의 친절 한 안내와 설명에 감사하다”는 피의자 편지와 전화 받음

④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가져간 후 갈등이 심화된 사건

[무인스토어에서 실수로 결제되지 않은 소액의 상품을 가져간 사건에서,
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어린 사과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피해회복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사례]

-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검찰이 형사와 민사를 떠나서 항고인과 피항고인 입장을 헤아려 상식선에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와서 조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피해자 감사 편지

⑤ 마트에서 실수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한 사건

[마트에서 앞 사람을 앞질러 가려다 카트로 앞 사람의 종아리 부위를 충격해 좌상을 가하였으나 노령을 이유로 기소유예된 과실치상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서로 화해하고,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비만 받고 항고취소.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피항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안을 처리해줌]

- ※ 항고청 검사는 항고취소시 항고각하라는 형식적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사건을 직접 재기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됨

[갈등치유 전담팀 운영 개요]

- 가족 등 가까운 사람 사이의 오랜 불화, 층간소음·주차문제·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이웃 사이의 감정싸움이 폭력·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등 사건에서,

형사처분이 종료되더라도 구조적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형사절차는 종료(벌금, 기소유예, 재판 등) 되었지만 갈등은 남아있는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는 문제 발생

- 이에, 서울고검은 갈등 조정이나 해결에 더 관심을 보이고, 정성을 들이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갈등 해소에 주력하게 하였고,
- 2022. 2.부터는 형사부(형사부장 임현) 산하에, '갈등치유 전담팀'(검사 1명, 사무관 1명, 수사관 1명)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 시작함
- 갈등치유팀의 감정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피해자들의 삶의 질 개선효과로 인한 보람 또한 높아 지속적인 갈등 해결 노하우 축적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끝.